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0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7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조 국 · 이기현
황정아 · 염태영 · 이병진
민병덕 · 안태준 · 윤종균
이재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,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.

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,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,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6항, 제15조제

10항 신설).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,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치의 주요 내용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·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그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